

주인을 기다리는 새 집

공화국에서 라선시 선봉구역 민복동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레전에 없던 큰물로 무서운 재난을 입었던 이곳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밀려 사화주의선경마을이 일떠선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라의 은덕이 하도 고마워 이곳 인민들은 백학이 날아와 앉은것같은 자기들의 마을을 반복동이라고 이름지었다.

뜻깊은 이 이름과 더불어 이 고장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려왔으며 이 과정에 꽃피던 가지가지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오늘도 주인을 기다리며 빈집으로 있는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홍영원》, 햇빛이 따스히 비쳐드는 반복동의 한 살림집에는 이런 문패가 걸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사연깊은 살림집과 함께 나란히 서있는 그 집에는 현재 주인이 살고있지 않다. 거기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여있는것인가.

몇해전 라선시가 콘콜패를 입었을 때 불행에 당한 사람들에게는 홍영원이라는 소년도 있었다.

콘콜에 일가식물모두를 한

꺼번에 잃고 심하게 다쳐 생사기로서 해매는 그를 마을 사람들은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얼마후 영원의 작은 가슴에 다 받아안기에 너무도 크나큰 사랑이 와닿았다. 병원침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나라에서 새 보금자리를 안겨준것이었다.

그러나 홍영원의 눈물을 미처 닦아내지 못한 그에게 해당 일군이 살림집리용 허가증을 꼭 쥐여주었다.

《어서 자리를 털고일어나 고마운 사화주의조국을 받드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살림집리용허가증에 또박또박 새겨있는 자기 이름을 몇번이고 입속으로 외워보며 영원은 오래도록 어깨를 들먹여었다.

자려로운 어버이의 위대한 사랑이 삶의 자양분이 되어, 사화주의대가정에서 한식술의 정을 나누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영의지가 되어 그는 수십일만에 대지를 밟고 일어섰다.

그날 제발로 걸어 자기에 앉겨진 새 보금자리에 들어섰다.

아직은 자기가 받아안은 사랑이 얼마나 큰것인지 다는 모를 나이인 영원이, 더우기 혈혈단신 그에게도 나라에서는 돈 한푼 받지 않고 이미

살던 집보다 더 훌륭한 새 보금자리를 안겨주었으니 이런 꿈같은 현실을 사화주의의 땅이 아닌 어디에서 또 찾아볼수 있랴.

잠시후 그는 눈물이 글썽하여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속진정을 터놓았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저는 의붓아들입니다. 저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으며 언제나 저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조국의 품이 있습니다.》

지금 영원은 한없이 소중한 사회주의제도, 어머니조국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다.

영원은 비록 자기 집과 멀리 떨어진 초소에 있어도 가슴속에는 고마운 사화주의 제도가 안겨준 삶의 보금자리, 덕과 정으로 화복한 대가정의 식솔들의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지금도 공화국에서는 이런 가슴뜨거운 빈집이야기가 많다. 얼마전 평안군 청학농장에서 지역의 특색과 세련미를 살리면서 현대성과 미학성이 보장된 문화주택들에 농업근로자들이 새 보금자리를 썼다.

그런데 여기 살림집들 가운데 빈집이 여럿이나 있었다. 그 빈집의 사연은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

오는 제대군인들이 들게 될 집이었다. 군건설터단에서는 농촌건설을 진행하는 초시기에 벌써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농장원자들이 살게 될 살림집까지 미리 더 지었던 것이다.

농업근로자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이 안겨지고 또 앞으로 늘어나게 될 농장의 새 식구들을 위한 보금자리까지 훌륭히 마련되고있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현실이다.

지구상 그 어디에나 근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행복은 오직 공화국의 근로를 찾아 철저히 헤매고있다는 말이 실려있다.

이것이 바로 비어있는 살림집상태를 통해 본 사화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이다.

진정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근로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공화국의 인민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들이다.

사람들이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기때문이다. 거리들에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들의 대다수가 빈집으로 남아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갈 집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현대명명》을 떠드는 자본주의사회의 내면세계이다.

남조선의 어느한 잡지에도 특권층 10명이 소유하고있는 살림집만 해도 무려 5500여채에 달하는 반면에 전체 주민세대의 45%가 제 집이 없어 쓰레내기살이를 하고있고 1000여만명이 계절에 따라 보금자리를 찾아 철저히 헤매고있다는 말이 실려있다.

이것이 바로 비어있는 살림집상태를 통해 본 사화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이다.

진정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근로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공화국의 인민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들이다.

《북의 새 변화거리... 화성지구 새집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양의 화성 지구에 사화주의변화가, 인민의 리상거리가 웅장화려하게 솟아올라 새집들이가 진행되고있는데 대해 남조선에서 경탄과 부러움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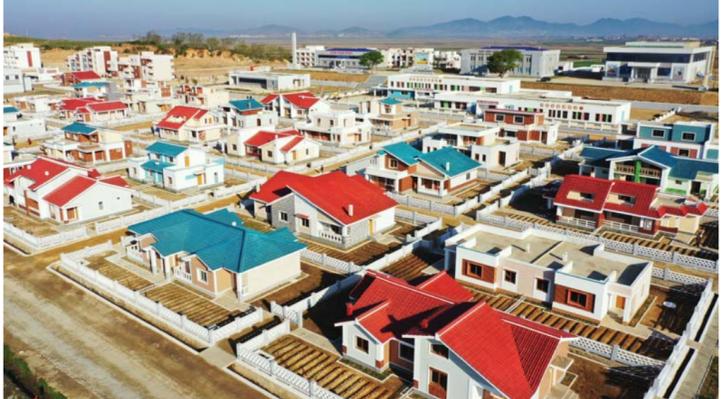
남조선의 언론들은 《사화주의문명의 리상향으로... 평양 화성지구주례 새집들이》, 《북의 새 변화거리... 화성 지구에 새집들이》 등의 제목으로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들이 사상예술품과 건축의 기능적측면에서 완벽한 결과품들로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건축물들을 감색과 밤색, 회백색타일로 마감하여 은은하면서도 고전미를 느낄수 있게 하였으며 고층살림집들을 도로와 평행하지 않고 락제감이 나도록 배치한것이 특징이다. 거대한 꽃잎들이 펼쳐진 듯한 지붕과 우주를 관망하는 전망대처럼 보이는 지붕 등 지붕장식에 새롭고 독특한

한 건축장식수법을 도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평양의 화성지구에 건설된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배정된 데 대해 《대규모의 살림집들이 들어선 화성지구에서 새집들이가 시작되었다. 금수산 태양궁전가까이에 위치한 이곳에 일떠선 새 거리에 로동자들과 교린, 전경명명, 재배관, 군인가족 등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살림집을 받았다.》, 《북의 새 변화거리로 불리우는 화성지구의 살림집들이 평범한 근로자들이 새집들이를 하여 눈길을 끌고있다. 정말 놀란다.》, 《화성거리의 상진건물인 40층살림집에 새집들이하는 로동자를 비롯하여 새 살림집을 배정받은 주민들은 창밖으로 안겨오는 웅장화려한 새 거리의 장관에서 눈길을 땀수 없어하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꽃피는 새집들이경사자 자기 가정에도 펼쳐졌다

고 하면서 신문과 TV에서 보아오던 이런 희한한 살림집이 내 집이라는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북주민들은 한결같이 우리 원수님의 은덕이 너무도 크고 고마워 기쁨보다 눈물이 앞선다. 리상으로 그려보던 현대적인 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고보니 나라의 은덕이 어떻게 보담했으면 좋았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김정은주쿠위원장께 충성다할 결의를 다지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북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2025년까지 해마다 1만세대씩 총 5만세대의 살림집들을 평양시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첫째 사업으로 지난해 송화거리에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으며 지난 4월 화성지구에 1만세대 살림집을 완공하고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진행하고있다.》고 전하였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떤 일이나 현상을 두고 걱정할 때가 있다.

그런 걱정이 어찌 한두가지지랴.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가 되어서부터 나에게도 딸을 두고 하는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락아소매에는 류달리 발투정이 심한 애가 발을 제대로 뜨지 않아 걱정이더러 유치원시절에는 피아노를 친다, 바둑을 한다 하며 여기저기 《우물》을 파놓기만 해서 앞으로 커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더해졌다.

하지만 무슨 대수랴. 다른 얼마들든 다 나같이 이런 공통의 걱정을 늘 가슴에 달고 사는대야.

오래 정말 큰 걱정거리는 좀 있으면 소학교를 졸업하게 될 딸에의 걱정문제이다. 며칠전 담임선생님께서 전화를 걸려왔다. 소학교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딸에의 전명과 관련하여 피아노를 치는 감각이 뛰어나오니 예능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보내겠는가 아니면 수학에서도 학급에서 단연 첫자리이니 1중학교에 보내겠는가 하는것을 의논하자는것이다.

본인의 결심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결심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자식의 전명과 관련한 첫 선택이다.

어느 학교에 보낼것인가? 정말 걱정은 크다.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드는데 그렇다고 이 학교, 저 학교 다 보낼수는 없는거지 이쪽을 생각하면 저쪽, 저쪽을 생각하면 또 이쪽이 나아보이는것같아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다.

이런 나를 두고 시어머니나 본가집어머니가 꼭같이 하는 말이 《정말 행복한 걱정을

하고있구나.》이다.

아이를, 자식문제때문에 걱정하는데 행복하다는건? 하지만 가만히 음미해보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학교에 보내고싶어도 보낼수 없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 보내겠는가 하는 걱정이기때문이다.

행복한 걱정이란 말이 가슴에 파고들수록 정말이지 세상이 부럽없이 맑게 자라는 우리 자식이 고마운 내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를 다 알고나 있는지 그것이 몹시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이 어머니가 자식의 밝은 전도를 놓고 이처럼 행복한 걱정을 하고있을 때 저 남조선편의 어머니들은 과연 어

떤 걱정을 하고있는것인가. 지금으로부터 1년전 지상에 실렸던 글이 문득 떠오른다.

비록 글줄로 접한 이야기였지만 남조선의 불우한 한 어머니가 나에게 터놓은 사연인것만 같아 새겨보던 눈곱에 눈물이 고여오른다.

빠듯한 살림에 세금내기조차 걱정인데 등록금인상으로 차의 학교집어머니가 꼭같이 하는 말이 《정말 행복한 걱정을

하고있구나.》이다.

아이를, 자식문제때문에 걱정하는데 행복하다는건? 하지만 가만히 음미해보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학교에 보내고싶어도 보낼수 없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 보내겠는가 하는 걱정이기때문이다.

행복한 걱정이란 말이 가슴에 파고들수록 정말이지 세상이 부럽없이 맑게 자라는 우리 자식이 고마운 내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를 다 알고나 있는지 그것이 몹시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이 어머니가 자식의 밝은 전도를 놓고 이처럼 행복한 걱정을 하고있을 때 저 남조선편의 어머니들은 과연 어

녀성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될수 없는 걱정의 중앙에 놓여있고 지름을 쓰고있다.

언제 직업용 메를지 몰라 늘 불안에 마음조이는 걱정도 있고 큰물이 밀려들면 집이 닦인 반지하집이 물에 잠겨 걱정, 물가자 날마다 뛰어들어 생계를 이어갈 걱정, 날마다 궁중대는 포소리야 땅고의 평을에 전성기 일어날가 두려운 걱정이 뵈어지지 않는 못처

럼 가슴에 아프게 박혀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에 나가면 물리우교 구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 대학을 졸업하면 직업걱정, 군대에 나가면 언제 기합을 당해 고통당하고 총탄에 가슴 뚫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등 겹겹결을, 날과 날이 걱정의 연속으로 무정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실로 멀어내는 걱정은 없고 더해지는 걱정이 있는 사회이다.

걱정이란 말은 같아도 그 말씀에 비긴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사는 인간들의 모습은 이처럼 판이하다.

평민들은 죽기 딱 좋은 사회라고 남조선의 민심이 침울해지는 그 사회에서는 단지 이

가, 어떻게 하면 인민들이 무병무탈할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국가가 늘 품고있는 걱정이다.

하지만 민생은 아랑없어 어떻게 하면 외세인 미국의 비위를 더 잘 맞출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권력의 다름에서 이기고 살아남겠는가, 어떻게 하면 당국과 정치에 대한 민심의 불만과 분노의 평을에 다른데로 돌릴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남을 디디고 올라서 내 배를 채울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특권층을 위한 사화인 남조선사회에서 당국자들과 정객들이 안고있는 걱정거리이다.

정경 우리가 늘 입에 올리는 하는 걱정이란 말에도 인생과 사화에서의 빛과 어둠이 대조적으로 비껴있다.

나는 말에의 전명을 놓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다.

이 좋은 제도, 떠나선 못할 이처럼 살기 좋은 내 나라에서 언택의 선택권이 앞에 놓인다 해도 그 언택의 선택권은 다 행복이고 기쁨이며 즐거움이다.

딸아, 걱정 말고 네 운명을 네 손으로 선택해라.

너의 운명, 너의 앞날에 대해 이 어머니는 걱정하지 않는다.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세계적인 명약개발에 열정을 바쳐가는 여성과학자 >>>

병없이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려는것은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는 의약품 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최근 공화국의 김춘옥 교리의학종합병원 연구사가 개발한 인삼삼지구엽초항암알약에 대한 평판이 자자하다.

다른 항암제들과 달리 이

평의 산과 들 그 어디에나 흔한 고려약재를 리용하여 우리 식의 독특한 제조법으로 만든 인삼삼지구엽초

항암알약은 림상실현에서 그 우월성이 뚜렷이 검증되었으며 조진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증서를 받았다.

그는 늘 고려약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된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곤 하였다.

비록 전문연구사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흔한 고려약재를 가지고 불치의 병을 치료하고 전신을 재생회복시키기 위한 탐구의 길에 스스로 뛰어들었던 정방공으로 일할 때라고 한다.

공장에서 실을 뽑는 속에서도 김춘옥은 자기가 내세

운 목표에 부합되는 많은 착상을 하였다.

그런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저마다 도와나섰다. 그의 연구에 필요한 책이라든가 아무리 먼곳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구해다주었고 신문들에 새로운 의학소식이 실리면 남짓 알려주곤 하였다.

《기초지식이 부족하여 막 안락하게 때가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약학을 배우고싶었습니다.》

효능높은 새 항암제를 연구도입하여

민간로범에 밝았고 의학에 일정한 조예를 가지고있던 김춘옥은 대학시절 선진문헌 자료들을 탐구하는 과정에 기관관례대로가 아니라 효소를 넣지 않고 이 땅에 흔한 고려약재를 기원으로 하고 저온, 저압의 생물반응기를 리용하여 항암작용과 생리활성작용이 강한 새로운 성분들을 만드는 제조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졸업후에는 대학에서 연구사로 일하면서 생물제약법을 과학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새로 개발한 항암제에 대한 동물실험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글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직 나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저의 연구사업성형을 몸소 리해하시고 생물반응기에 의

한 제조법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과학화할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걸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평양에 소환되어 고려리의학종합병원 연구사로 일하게 된 김춘옥은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그는 순간의 주저와 망설음을 몰랐다. 지칠줄 모르는 탐구의 나날 김춘옥연구사는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린 판단위들과 지혜와 힘을 합쳐 그 효과성이 검증된 새로운 항암제연구에서 끝끝내 성공하고야말았다.

새로운 제조법으로 만든 효능높은 항암제에 관한 린 그의 소논문은 국제잡지에 게재되었으며 국내외학과

도 평범한 근로자들이 데워 원이 되고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이 되려는 꿈과 희망이 현실로 되었다고 눈곱을 적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진정 고마운 그 품속에 마음껏 반복의 꿈을 꾸고 현실로 꽃피워가는 이 나라 인민들처럼 복받은 인민이 또 어디에 있랴.

김춘옥연구사의 꿈과 포부는 더욱 커지고있다.

세월을 앞서나가는 우리 식의 훌륭한 연구성과들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인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가려는것이 그가 안고 사는 강렬한 열망이다.

평범한 여성과학자의 성장에서 우리는 다시금 절감하였다.

우리 사는 이 땅은 아름다운 꿈을 낳는 토양이고 사화주의조국을 그 꿈을 활짝 꽃피워주는 은혜로운 품이라는것을.

그녀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리라하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공장일군이 손에 쥐여주는 림상의학대학 추천서를 펼쳐보았을 때 김춘옥은 기쁨에 앞서 놀라움에 더 컸다.

남몰래 품은 로동자처녀의 마음속소원까지 헤아려 배움의 노래를 활짝 펴도록 보살펴주는 나라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그는 대학추천서에 얼굴을 묻고야 말았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공화국에서 모든 사람들의 꿈에 얼마나 귀중히 여기며 어떻게 활짝 꽃피워주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꿈은 소중한 것이다. 학기에 사람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생을 바치기도 한다.

이 땅의 그 어디에 가보아

한 학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그는 《암치료에 쓰이는 약용식품》, 《고려약리료리판》, 《비노기질병의 고려치료》와 같은 도서를 집필하여 나라의 고리의학발전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학위론문을 쓰라고 권고하고있지만 김춘옥연구사는 그보다 먼저 인민들의 건강증진이 바라는 더 좋은 고려약개발에 온몸을 다 바쳐가고 있다.

보담의 첫걸음을 떼며 불과한 그에게 영광의 시적이 왔다.

주제111(2022)년 4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

본사기자 홍범식



김춘옥연구사(오른쪽)